
**미국 워싱턴주립대학교 연구협력
과제 계약 체결과 사과 및 쌀 산업,
대미 농식품 수출 및 유통실태
파악을 위한 해외출장 결과 보고**

2010. 7

KREI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 출장개요

□ **출장명:** 미국 워싱턴주립대학교 연구협력 과제 계약 체결과
사과 및 쌀 산업, 대미 농식품 수출 및 유통실태 파악

□ **출장목적**

- 미국 워싱턴주립대학교(Washington State University)와의 연구협력 과제 계약 체결식 참석 및 상호 협력강화 방안 논의
- 미국 워싱턴주 사과산업(생산, 가공, 유통) 실태 파악
- 미국 캘리포니아주 쌀 산업(생산, 도정) 실태 파악
- 한국 농식품 대미 수출 및 유통 실태 파악

□ **출장기간, 출장자, 출장지**

소속	출장자	직위	출장기간	출장지
원장실	오세익	원장	6월20일(일)~27일(일) (5박 8일)	미국 워싱턴주, 캘리포니아주
농식품정책 연구본부	최지현	본부장		
미래정책연구실	장재봉	부연구위원		

□ **주요 조사내용**

- 워싱턴주립대학교 및 부설 Tree Fruits Research and Extension Center
 - △ 연구협력 과제 계약 체결
 - △ 향후 상호 연구협력 강화 방안 논의
 - △ 과수의 생산, 유통, 소비에 이르는 생산단계별 관련 연구 진행상황
- 워싱턴주 사과위원회(Washington Apple Commission), 선과장(Stemilt) 및 가공공장(Tree Top, Inc.)
 - △ 사과산업 현황 파악 및 유통과정, 사과 가공식품 공정 시찰
- 캘리포니아 쌀 위원회(California Rice Commission) 및 도정시설(Farmers' Rice Cooperative)
 - △ 미국 캘리포니아주 쌀 산업 실태 조사 및 도정 및 유통과정 시찰
- 대미 농산물 및 식품 수출 상황 및 현지 유통 실태 파악
 - △ 해태 글로벌 및 대형 유통업체(갤러리아) 방문

□ 주요 일정

일시	이 동	주요 일정
6월20일 (일)	■ 인천(18:30)→시애틀(12:25) ■ 시애틀(15:00)→스포캔(15:50) ■ 스포캔(16:30)→폴만(18:00)	■ 출국, 현지 도착 ■ 현지 간담회
6월21일 (월)	■ 폴만(09:00~10:00) ■ 폴만(10:00)→웨나치(14:00)	■ 워싱턴주립대학교(WSU) 방문 ● 연구협력 과제 계약 체결 ■ 워싱턴 사과 위원회 방문 ■ 사과 선과장(Stemilt) 방문 ■ WSU 부설 Tree Fruits Research and Extension Center 방문 ■ 현지 연구관련 협의회
6월22일 (화)	■ 웨나치(08:00)→야키마(10:00) ■ 야키마(14:00)→시애틀(17:00)	■ 사과 가공공장(Tree Top, Inc.) 방문
6월23일 (수)	■ 시애틀(13:35)→새크라멘토(15:25)	■ 쌀 주산지(새크라멘토 밸리) 시찰
6월24일 (목)	■ 새크라멘토(09:00~14:00) ■ 새크라멘토(15:21)→LA(16:46)	■ 캘리포니아 쌀 위원회(California Rice Commission) 방문 ■ 도정공장(Farmers' Rice Cooperative) 방문
6월25일 (금)	■ LA(09:00~24:00)	■ 한국 농산물 및 식품 수입업체 방문 ● 해태 글로벌 ■ 한국 농산물 및 식품 유통업체 방문 ● 갤러리아 마켓
6월26일 (토)	■ LA(00:10)→인천(27일 05:05)	■ 귀국

□ 주요 면담자

소 속	직 위	성 명
워싱턴주립대학교	Associate Dean (Academic Affair), CAHNRS	Dr. Kim Kidwell
	Director, School of Economic Sciences	Dr. Ron Mittelhammer
	교수	Dr. Vicki McCracken
	교수	Dr. Tom Marsh
	조교수	Dr. Karina Gallardo
	조교수	Dr. Seung Choi
워싱턴 사과위원회	President	Mr. Todd Fryhover
	Export Marketing Manager	Ms. Rebecca Baerveldt-Lyons
Stemilt Growers, Inc.	Production Manager	Ms. Darcey Brown
		Mr. Raul Anaya
Tree Top, Inc.	Senior Vice President	Mr. Lindsay Buckner
	Senior Marketing Manager	Ms. Brooke Goodrich
캘리포니아 쌀 위원회	President & CEO	Mr. Tim Johnson
	Manager, Domestic & International Promotion	Ms. Laura Quinones-Murphy
Farmers' Rice Cooperative	Director of Operations Finishing Goods	Mr. John Vieites
농수산물유통공사 LA 지사	지사장	신 현 곤
해태 글로벌	사장	정 정 우
	Marketing & Purchasing Team Manager	심 진 수
Galleria Market	Grocery Manager	Mr. John Yoon

2. 세부 출장 결과

(1) 워싱턴주립대학교(WSU)와의 연구협력과제 계약 체결

☐ 일 시: 2010년 6월 21일(월), 09:00

☐ 장 소: 워싱턴주 풀만(Pullman), 워싱턴주립대학교 농생명자원과학대학 (CAHNRS)

☐ 주요 참석자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오세익 원장, 최지현 농식품정책연구본부장, 장재봉 부연구위원

○ 워싱턴주립대학교

△ Dr. Kim Kidwell (Associate Dean, CAHNRS)

Dr. Ron Mittelhammer (Director, School of Economic Sciences)

Vicki McCracken 교수, Tom Marsh 교수, Seung Choi 조교수 등

☐ 계약체결 배경

○ 양 기관은 2009년 연구협력협정(MOA)을 체결하여 연구 결과 및 정보의 공유, 연구진과 교수진의 교류, 회의 및 세미나 등의 공동 개최, 상호 관심 분야에 대한 공동 연구, 연구자 및 직원 등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협력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음.

○ MOA 체결시, 양 기관은 워싱턴주 사과산업의 성공요인과 발전방향에 대해 공동연구를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은바 있음.

☐ 연구협력과제 세부내용

○ 연구책임자: Dr. Vicki McCracken (Professor, School of Economic Sciences)

○ 연구 목적

△ 미국 사과 생산량의 60%이상을 차지하는 워싱턴주의 사과 가공산업의 발전과정을 정리하여 한국의 과수 가공산업에의 시사점 도출

△ 사과 생산자와 가공업자의 입장에서 사과 가공업의 성장 요인 분석

- △ 현재 사과 가공산업의 현황 분석
- △ 사과 가공산업의 발전방향 제시

○ 연구 세부 내용

- △ 미국의 사과 가공산업의 현황 분석: 발전과정, 조직 변화, 주요 논점
- △ 사과 가공산업과 생산자와의 관계 분석: 원재료(사과) 구매, 가공품의 유통, 가공산업과 연계된 생산자 역할
- △ 사과 가공산업에서의 주요 이슈 분석: 이윤분배 방식, 대금 지불정책, 유통 계약 및 조직원의 역할
- △ 시장환경 변화 분석: 소비자 및 유통업자 선호도 등
- △ 유통 및 홍보전략 분석: 유통단계 및 시스템, 전략적 제휴 등
- △ 향후 변화 가능성 및 전망 분석

○ 기대효과

- △ 미국 사과산업의 생산, 가공, 저장, 유통, 소비촉진, 수출 등 각 단계별 세부 정책 및 전략 파악
- △ 미국 사과 가공산업의 발전 과정에서의 경험과 전략 등에서 새로운 시장패러다임으로의 발전을 위한 우리나라의 과수 가공산업에 대한 시사점 도출

- 연구협력과제 계약 체결 후, 양 기관의 기타 관심 분야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향후 상호 협력강화 방안 등을 논의함.

<사진 1> 워싱턴주립대와의 협력연구과제 계약체결식



(2) 워싱턴주 사과 위원회(Washington Apple Commission) 방문

□ 일 시: 2010년 6월 21일(월), 14:00

□ 장 소: 워싱턴주 웨나치(Wenatchee)

□ 주요 면담자: Mr. Todd Fryhover (President)

Ms. Rebecca Baerveldt-Lyons (Export Marketing Manager)

※ 워싱턴주립대학교 McCracken 교수와 Gallardo 조교수 동행

□ 주요 조사내용

- 위원회가 제작한 워싱턴주의 사과 재배 환경, 생산, 유통, 저장, 수출까지의 단계를 요약적으로 설명한 홍보용 시청각 자료를 시청함.
- 워싱턴주 사과위원회는 1937년 워싱턴주 사과 홍보를 목적으로 설립된 미국 최초의 상품 위원회(Commodity Commission)로써, 약 22,000명의 사과 농가의 기부금과 정부의 지원금으로 운영되고 있음.
- 워싱턴 사과에 대한 생산자와 소비자들의 가치를 강화하고 향상시켜서 관련 산업을 보호하고 증진함을 위원회의 목표로 설정하고 있음.
- 사과 재배농가들은 광고 및 수출 촉진을 위해 42파운드 박스당 25센트를 의무적으로 기부하고 있음.
- “세계 최고의 사과”를 비전으로 설정하고 워싱턴주에서 생산된 사과의 약 25~30%를 전 세계 약 60여개국으로 수출하고 있음.
 - △ 주요 수출국: 멕시코, 캐나다, 대만, 아랍에미레이트, 중국, 홍콩, 인도네시아, 영국, 사우디아라비아, 태국 등
 - △ 재배 품종 가운데 Red Delicious, Golden Delicious, Granny Smith, Gala, Fuji가 약 90%를 차지함.
 - △ 수출국별로 전략 품목을 설정하여 수출 촉진을 꾀하고 있음.
 - 멕시코·캐나다(Gala), 대만(Fuji)
 - 러시아(large size), 말레이시아·베트남(small size)
 - △ 한국은 워싱턴 사과는 수입하고 있지 않으며, 체리를 수입하고 있음.

- 사과 재배를 위한 조건들, 즉 산악지역에서 내려오는 풍부한 수자원과 정비된 관개시설, 이상적인 기후조건, 병충해 관리 시스템이 발달하여 사과 생산에 최적의 조건을 갖춘 워싱턴 지역에서 미국 사과 생산량의 약 60% 이상을 생산하고 있음.
- 시기별로 품종을 다른 목적에 맞게 수확하여 우수한 품질을 유지함.
 - △ 8월 중순: Gala, Golden Delicious → 신선과일
 - △ 9월: Red Delicious, Cameo, Honeycrisp → 신선과일
Braeburn → 샐러드, 스낵류용
 - △ 10월: Fuji, Granny Smith → 신선과일
Cripps Pink → 스낵류용
- 전체 생산량의 20~25%를 가공용으로 사용하고 있음.
- 워싱턴주 사과 생산량의 약 5~6%를 유기농 사과가 차지하고 있음.
(물량 기준으로 약 6백만 박스)
- 워싱턴주는 독립적인 등급 책정 시스템을 가지고 있음.
- 국내 홍보활동의 불가와 'Cameo' 품종 생산 농가들의 독자적인 조직체 구성 등, 워싱턴주 사과 위원회의 조직의 규모와 위상은 예년에 비해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3) Stemilt Growers, Inc. Packing House (과수 선과장) 방문

- ☐ 일 시: 2010년 6월 21일(월), 16:00
- ☐ 장 소: 워싱턴주 웨나치(Wenatchee)
- ☐ 주요 면담자: Ms. Darcey Brown(Production Manager)
Mr. Raul Anaya
- ※ 워싱턴주립대학교 McCracken 교수와 Gallardo 조교수 동행

□ 주요 조사내용

- 1964년 워싱턴주 웨나치에서 설립된 과수의 생산, 저장, 유통 업체로써, 미국내 최대 규모의 체리 유통업체이며, 유기농 과수의 최대 공급처 가운데 하나임.
- 워싱턴주와 캘리포니아주에 각각 네 개와 하나의 선과장을 운영중이며, 캘리포니아 남부지역부터 워싱턴주 중부, 캐나다 국경지역까지 직영 과수원을 관리하고 가공공장을 보유하고 있음.
- 주요 생산품목은 사과, 배, 체리, 여름 과일, 유기농 과일 등임.
 - △ 사과: 12가지의 사과 품종을 취급하며, PINATA라는 자체 틈새시장용 품종을 보유하고 있음.
 - △ 배: 11가지의 품종을 취급하고 있음.
 - △ 체리: 5월초부터 8월말까지 Dark Sweet과 Rainier 체리를 공급하며, 겨울에는 자체적으로 칠레에서 체리를 생산하여 공급하고 있음.
 - △ 여름 과일: 복숭아, 자두, 블루베리 등을 공급하며, 이들중 복숭아는 전량 유기농 상품임.
- 약 400여명의 인력이 사과 선별 작업에 참여하고 있었으며, 대부분이 멕시코계 노동자들이었음. 노동자들은 조별 교대 근무로 주간 및 야간에 선별 작업을 진행함. 사과 수확부터 선별과정까지 기타 농업부문에서와 마찬가지로 멕시코 등의 중남미의 값싼 노동력에 크게 의지하고 있음.

<사진 2> 사과 선별 작업현장



- 선별된 사과들을 박스에 포장하는 단계에서도 낱개 포장의 경우, 숙련된 노동자가 일일이 포장하는 등 노동집약적인 공정임.

<사진 3> 사과 포장현장



(4) 워싱턴주립대학 부설 Tree Fruits Research and Extension Center 방문

☐ 일 시: 2010년 6월 21일, 17:20

☐ 장 소: 워싱턴주 웨나치(Wenatchee)

☐ 주요 면담자: Dr. Karina Gallardo (Extension Economist)

Dr. David Granatstein (Sustainable Agriculture Specialist)

※ 워싱턴주립대학교 McCracken 교수와 동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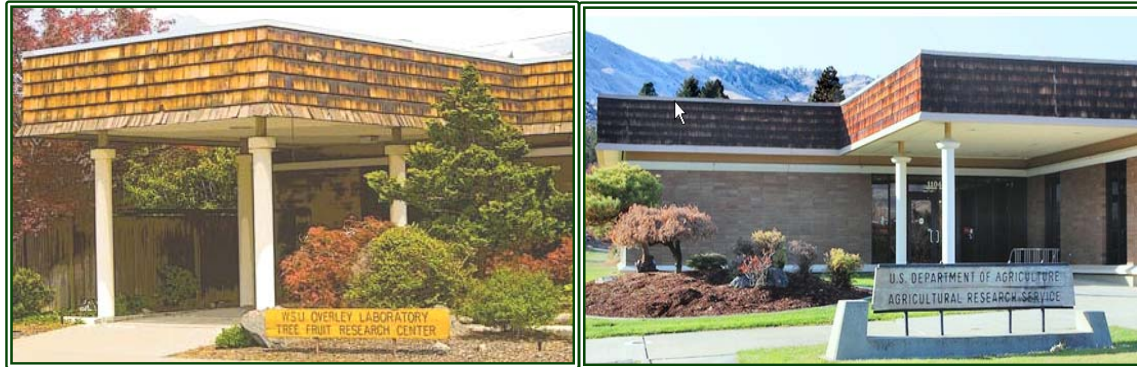
☐ 주요 조사내용

- 미국의 일반적인 주립대학교와 마찬가지로 워싱턴 주립대학교도 land-grant 대학교로써 지역 사회의 농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부설 연구기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워싱턴주 특성상 과수산업의 발전을 주목적으로 과수 생산의 주산지인 웨나치 지역에 과수를 중점적으로 연구하기 위한 연구센터를 설립하고 운영하고 있음.

- 센터에는 과수생산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20여명이 근무하고 있음. 분야별로 토양, 원예, 경제, 병충해 관리, 기후 등 다양하여, 서로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공동 연구를 진행하고 있음.

- 과수 농가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신재배기술, 품종개발, 기후변화, 병충해 관리법 등을 연구·개발하여 지속적으로 지역 농가들에게 홍보하고 교육하는 등 지역 사회 및 산업발전에 기여하고 있음.

<사진 4> Tree Fruits Research and Extension Center 전경



(5) Tree Top, Inc. 방문

☐ 일 시: 2010년 6월 22일(화), 10:00

☐ 장 소: 워싱턴주 야키마(Yakima)

☐ 주요 면담자: Mr. Linsay Buckner (Senior Vice President)

Ms. Brooke Goodrich (Senior Marketing Manager)

※ 워싱턴주립대학교 McCracken 교수와 Gallardo 조교수 동행

☐ 주요 조사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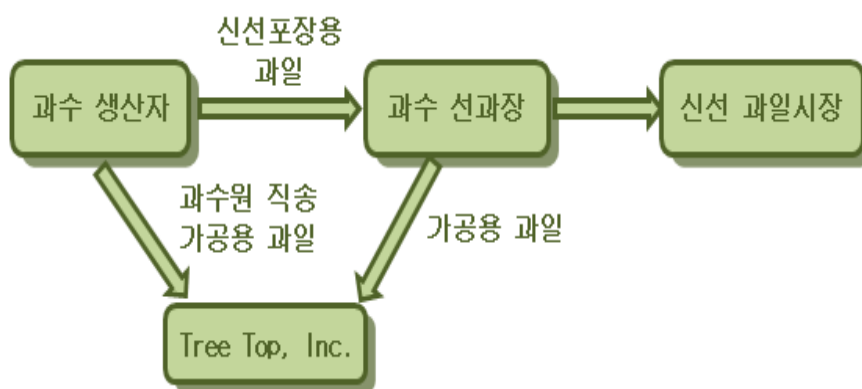
- 올해 설립 50주년을 맞이한 워싱턴주와 인근의 아이다호주의 1,000명 이상의 과수 생산자의 조합이 보유하고 있는 매출액 규모(시장 점유율 20%) 미국 최대의 과수 가공공장임.
- 워싱턴주, 캘리포니아주, 오레곤주에 총 8개의 생산공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들 공장에서 25가지 이상의 다른 과일을 이용하여 20가지 이상의 다른 과일 주스를 생산하고 있음.

- Tree Top, Inc.에서 생산하는 제품은 크게 (1) 포장 소비식품(consumer packed foods)과 (2) 기타 식품 제조용 원료(ingredients)와 식품 서비스(food services)로 구분됨.
- △ 제품 생산에 사용되는 주요 품종은 Red Delicious, Golden Delicious, Granny Smith임.
- △ 세계 최대의 사과 건조제품 공급자로 미국 내 상위 25개 식품 제조 회사에 20가지 이상의 원료를 공급하고 있음.

<사진 5> Tree Top, Inc.에서 생산한 주스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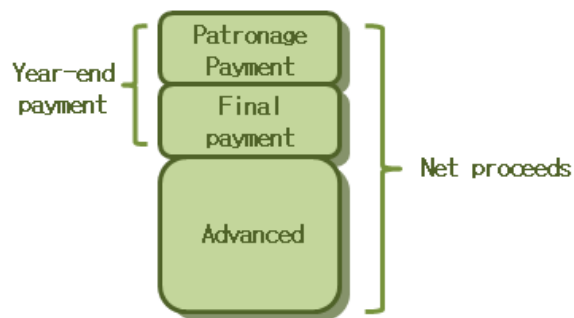


○ 운영 형태



- 사과 생산자와 Tree Top, Inc.는 두 가지 계약형태를 취하고 있음.
- △ 중량계약(tonnage contract)
 - 조합원마다 시장권리(market right) 내에서 총량을 결정

- 과수의 가치 결정방식



△ 시장권리계약(market rights contract)

- 시장권리 소유권을 기본으로 하여 조합권이 보유한 시장권리가 계약 물량과 동일함.
- 대금지불은 배달시점에 미리 지불하고 연말에 순수익을 고려하여 정산

<사진 6> 사과주스 생산공정



- 지난 5년간 사과 가공식품의 주 판매처는 소매점에서 도매 유통업체로 이동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제품의 홍보 사업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예전의 홍보수단인 신문 및 잡지와 같은 인쇄물이나 소매점 내의 쿠폰 배부 방식에서 벗어나 직접 소비자들과 접촉하여 제품의 인지도 및 품질을 홍보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있는 추세임.
- △ 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충성도(loyalty)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식의 공격적인 홍보 전략을 구사하고 있음.
- 기존의 신문이나 잡지 위주의 광고에서 인터넷을 활용한 방식에 집중

- 자사 홈페이지는 물론이고, 사회교류 네트워크(Facebook, Youtube, Twitter 등) 등을 활용하고 있음.
- 특히, 어린이를 겨냥하여 주부들을 주 대상으로 설정하여 다양한 홍보 전략을 시행하고 있음. 2010년 설립 50주년을 맞이하여 “양보다 질”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우고 자사 브랜드에 대한 감정적 선호(emotional preference)를 유발하고자 하는 다양한 이벤트를 시행하고 있음.

<사진 7> Tree Top, Inc.의 다양한 홍보전략



(6) 캘리포니아 쌀 생산지(새크라멘토 밸리) 시찰

□ 일 시: 2010년 6월 23일(수) 16:30

□ 장 소: 캘리포니아주 새크라멘토 밸리

□ 주요 조사 내용

- 미국의 주요 쌀 생산지는 (1) 아칸소, 루이지애나, 미시시피 및 미주리 주의 그랜드 프레리워 미시시피 강 삼각주 지역, (2) 플로리다, 루이지애나, 텍사스주이 걸프연안, 그리고 (3) 캘리포니아주의 새크라멘토 밸리지역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캘리포니아주 주도인 새크라멘토의 북쪽에 위치한 남북으로 펼쳐진 캘리포니아 쌀의 대부분을 생산하는 곡창지대임. 캘리포니아주 50여개 카운티 가운데 13개 카운티가 이 지역에 위치하여 주로 쌀을 생산하고 있음.

- 캘리포니아밸리 곡창지대는 벼농사에 필요한 물이 풍부하지 않아 주변의 강(새크라멘토강, 유바강 등)과 인공 수로(티해머 운하 등)를 조성하여 강우량이 적은 기간에 물을 공급하고 있는 실정임.

<사진 8> 새크라멘토밸리 쌀재배지역



- 캘리포니아주는 미국 유일의 자포니카 대규모 생산지로서, 미국 쌀 총 생산량(약 1천만 톤)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음.
-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일본, 대만 등 동남 아시아로 수출하는 칼로스쌀이 백만톤 이상의 화물을 저장할 수 있는 새크라멘토항을 통해 출발하는 미국쌀 수출의 전진기지 인근에 위치함.
- 환경보호단체와 미국 환경청(EPA)의 규제로 인해 인근 지역으로 휴경논이 넓게 위치하고 있음.
- 미리 밟아된 씨를 비행기로 논에 피어 있는 물에 파종하며, 효율적인 물 관리와 수확량 증가를 위해 레이저 유도 기계를 이용하여 평탄작업을 시행함.
- 새크라멘토 밸리지역은 높은 일교차 등의 벼농사에 적합한 기후조건을 갖추고 있으나, 올해는 기상 여건 악화로 예년에 비해 한 달가량 늦게 모내기를 시행함.

<사진 9> 논 벼 발육상황 (2010년 6월말 현재)



(7) 캘리포니아 쌀 위원회(California Rice Commission) 방문

□ 일 시: 2010년 6월 24일(목) 09:00

□ 장 소: 캘리포니아주 새크라멘토(Sacramento)

□ 주요 면담자: Mr. Tim Johnson (President & CEO)

Ms. Laura Quinones-Murphy (Manager, Domestic &
International Promotion)

□ 주요 조사내용

- 캘리포니아주 쌀 위원회는 매년 약 200,000 ha에서 쌀을 생산하고 가공하는 2,500 여명으로 구성된 캘리포니아 지역의 모든 쌀 관련 산업을 대표하는 기관임.
- 위원회는 쌀 시장의 유지 및 확장, 마케팅 전략, 교육, 홍보 및 광고, 생산 및 가공관련 연구 등 광범위한 분야를 관장하고 있음.
- 주요 쌀 수입국의 쌀 생산 및 유통정보를 주기적으로 수집하여 자국 농가와 수출업자에 제공하는 역할도 수행하고 있음.
- 주요 쌀 수입국인 일본, 한국, 대만 등의 방문자를 위해 나라별 언어로

된 안내책자를 보유하고 있음.

- 2008년도에 미국 전체 쌀 생산량은 9,241,125톤이며 이 가운데 캘리포니아 생산량은 1,9511,798톤 이었음.
- 2008년도에 미국 전체 쌀 생산량의 24.8%를 중단립종이 차지하고 있으나, 캘리포니아에서는 전체 생산량의 98.5%를 차지 하였음.
- 2008년도 기준, 캘리포니아주의 쌀 재배 면적은 209,385 ha이며, 이 가운데 중단립종 생산 면적은 약 90%에 육박하는 205,740 ha로 추정하고 있음.
- 벼 재배지역을 자연 생태계와 조화를 이루고 어류, 야생 동물, 그리고 철새들의 거주 및 보호지로의 역할을 크게 부각시키고 있음.
- 쌀 산업은 지역에 약 5,000여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야기시키며, 캘리포니아주 경제에 약 5억 4천만 불 이상의 큰 기여를 하고 있음.
- 현재 우리나라에서 논의 중인 조기관세화에 대해서도 파악을 하고 있었으며, 위원회의 입장은 공식적으로 “완전 자유시장(free market)"임. 국제 시장 관련 정책은 전미 쌀협회(US Rice Federation)에서 관장하고 있음.

(8) Farmers' Rice Cooperative (FRC) 도정공장 방문

☐ 일 시: 2010년 6월 24일(목) 11:00

☐ 장 소: 캘리포니아주 웨스트 새크라멘토(West Sacramento)

☐ 주요 면담자: Mr. John Vieties (Director of Operations Finishing Good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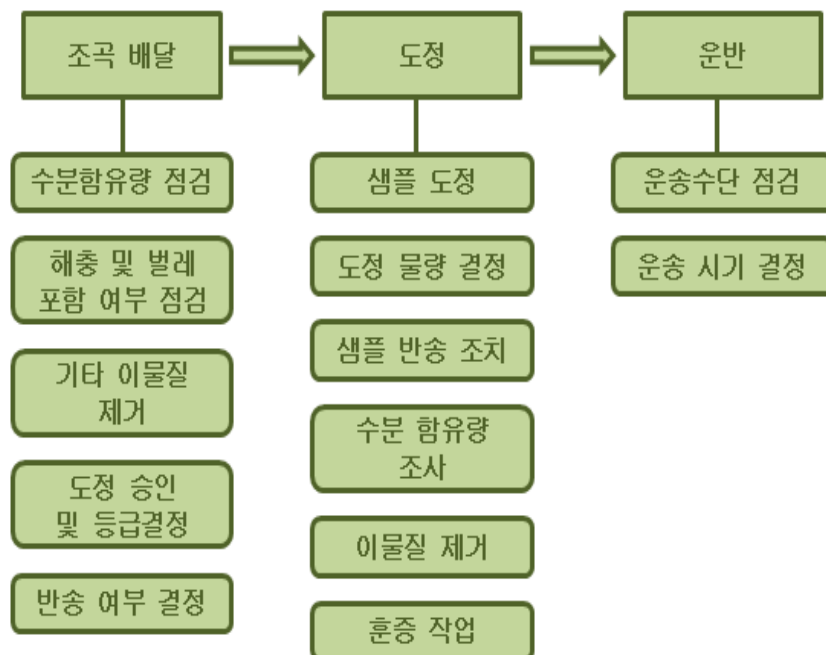
☐ 주요 조사내용

- FRC는 쌀 생산자들이 연합하여 설립한 쌀 마케팅 협동조합으로 새크라

멘토 항구와 인접한 지역에 두 개의 도정공장을 운영중에 있음.

- 새크라멘토 일대에 위치한 약 10여 개의 도정공장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도정공장으로 캘리포니아 산 쌀의 약 20% 이상을 취급하고 있음.
- 필요한 물량을 수시로 매입해 소비자 주문에 따라 가공하여 판매하고 있으며, 벼 저장시설과 미곡처리장이 분리되어 있음.
- 방문한 FRC 도정공장에서는 칼로스(Calrose)와 S-102 두 가지 종류를 취급하고 있음.
- △ 기타 도정공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품종을 취급하고 있음.
 - 중립종: M104, M202, M204, M205, M206, M208
 - 장립종: L205, L206
 - 단립종: S102
 - 고품질 중립종: M401, M402
 - Sweet rice: CM101

○ 도정과정



<사진 10> FRC 도정공장 전경



(9) 한국 농산물 및 식품 수입업체 방문: 해태 글로벌(Haitai Global)

□ 일 시: 2010년 6월 25일(금), 09:00

□ 장 소: 캘리포니아주 몬테벨로(Montebello)

□ 주요 면담자: 정정우(사장, 한국 농식품 수입상 연합회 회장)
심진수(Marketing & Purchasing Team Manager)

※ 신현곤(농수산물유통공사 LA 지사장) 참석

□ 주요 조사내용

- 미국 LA지역 인근 몬테벨로에 본사를 둔 30년 역사의 한국산 농산물 및 식품 수입·유통업체로 LA, 달라스, 샌프란시스코, 시카고, 아틀란타, 뉴욕, 캐나다의 토론토와 밴쿠버에 지점 및 사무소에 총 100여 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한국의 '해태'와는 독립적인 법인체임.
- 주요 취급 품목으로는 한국 해태제과의 과자 및 빙과류와 한국산 농수산물을 직접 수입하여 유통시키고 있으며, 캘리포니아산 쌀을 이용하여 '대풍'이라는 자체브랜드로 미국 전역의 한인 및 동양슈퍼마켓에 판매하고 있음.
- 취급 품목의 공급처별로는 한국으로부터의 직수입이 약 60%, 중국과

미국에서의 OEM 방식으로의 수입이 각각 20%를 차지하고 있음.

- 매출액 4,000만불 이상의 대형 수입 및 유통업체임.
- 현지에서 파악하기로는 LA와 인근지역에만 주요 소매점이 50여군데, 도매상이 200여 곳에 이르러 시장 포화상태에 이르렀다고 함.
-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보다 많은 종류의 한국산 농산물과 식품류 등의 가공품을 수입·판매하기 위하여 현지의 수입업체들은 연합회를 구성하고 있음.
 - △ 회원사: 해태 글로벌, CJ, 풀무원, 샘표, 대상, 오뚜기, 롯데, 진로, 동원
현지 지사, 왕(미국 현지 회사) 등
- 현지 수입업체들이 직면한 가장 큰 어려움은 물류 및 홍보의 한계점임.
 - △ 넓은 국토에 분포된 인구 특성상, 광고 효과는 한국의 약 30%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임.
 - △ 그동안 많은 성과가 있었으나, 아직까지 미국 주류 시장으로의 진입은 매우 저조한 상황임.
 - △ 현재 이뤄지고 있는 농수산물유통공사의 행정 및 재정지원의 확충을 요망함.
 - EXPO 행사시, 부스지원 및 Buyer 상담지원 등
 - △ 시장별 마케팅 전략 수립을 역설함.
 - 요리교실, 시식코너 등
 - △ 현지 수입업체 위주의 정책 고려 요망
 - △ 한국산 농산물 및 가공식품의 영문명 통일 요망
- 해태 글로벌의 경우, 최초로 한국산 쌀(철새 도래지쌀)을 직수입하여 미국 시장에 판매하여 좋은 반응을 보였으나, 이후 기타 업체들의 무분별한 수입시장 유입으로 수입이 중단된 상황임. 이와 유사한 경우로, 한국산 배도 최초 수입 이후 반응이 좋아진 이후, 여러 업체들이 경쟁적으로 수입하여 시장질서가 문란해지고 유통구조가 왜곡된 경험 있음. 따라서, 농수산물유통공사 등이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수입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주요 농림수산물식품 대미 수출 실적 (2010년 5월 현재)

(단위: 톤, 천불)

구분	'09년	2009. 1~5월		2010. 1~5월		증감률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전체	467,264.3	65,575.9	175,937.1	80,690.1	203,746.6	23.0	15.8
농식품	338,379.6	52,481.7	119,976.1	67,889.7	143,422.4	29.3	19.5
김치	2,268.5	232.1	772.1	422.6	1,217.0	82.1	57.6
인삼	8,309.5	166.1	3,040.0	196.7	2,753.4	18.4	△9.4
배	24,662.8	1,382.7	2,925.5	446.2	939.1	△67.7	△67.9
사과	26.1	0	0	8.3	16.4	-	-
권련	28,058.0	448.2	11,117.3	464.3	11,795.3	3.6	6.1
라면	20,081.9	3,306.0	9,246.9	2,498.5	7,884.9	△24.4	△14.7
커피조제품	4,509.8	570.5	1,914.0	448.3	1,520.7	△21.4	△20.5
막걸리	463.0	116.6	80.0	924.6	785.0	692.6	881.5
전통주	2,479.3	323.6	836.9	501.4	773.9	54.9	△7.5
소주	9,131.8	2,588.5	3,858.3	2,335.7	3,434.5	△9.8	△11.0
고추장	5,170.2	1,133.3	2,008.3	1,085.9	1,824.1	△4.2	△9.2
수산물	128,884.7	13,094.2	55,961.0	12,800.5	60,324.2	△2.2	7.8
굴	15,525.9	1,490.3	6,967.0	1,409.7	7,151.6	△5.4	2.7
김	19,335.9	1,603.0	7,453.7	1,472.4	8,790.4	△8.1	17.9

(10) 한국 농산물 및 식품 유통업체 방문: 갤러리아 마켓

□ 일 시: 2010년 6월 25일(금), 14:00

□ 장 소: 캘리포니아주 LA 한인타운내

□ 주요 면담자: Mr. John Yoon (Grocery Manager)

□ 주요 조사내용

- 한인타운에 위치하고 있으며 LA 시내와 인근 지역에 다른 4곳의 매장을 보유하고 있는 규모와 시설면에서 가장 대표적인 한인 유통업체임.
- 월평균 매출액이 350만 불정도이며, 현지에 대형 물류창고와 한국에도 사무실을 보유하고 있음.
- 주고객층은 한인이 다수를 이루고 있으나, 다른 아시아 국가들(예: 중국인 소비자가 20-30%를 차지)이나 미국 현지 고객층도 다수 확보하고 있음.
- 대기업들의 미국 현지 유통시장 진출 이후, 합법적인 유통질서가 확립 되었다고 함.

<사진 11> 갤러리아 마켓 내외부 전경



- 현지의 대형 유통업체들은 직접 한국산 농산물을 수입하여 판매하고 있음.
- △ 대표적인 품목으로는 과일, 생수, 상추, 쪽갓, 버섯 등이 있음.
- △ 한국산 과일의 경우 한국산 품종을 미국 현지에서 재배하여 판매하고 있음.
 - 배, 참외, 포도, 감 등
- △ 한국인 소비자들은 한국산 농산물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 가격문제만 해결한다면 충분히 시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 △ 특히, 미국산 농산물의 작황사정을 고려하여 적절한 시기에 해당 품목을 수입하여 판매할 경우에는 한국산 농산물의 경우에도 충분한 시장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 예를 들어, 최근 미국 현지의 배추, 무의 작황이 좋지 않아 가격이 상승하고 품질이 떨어졌을 경우에 수입이 증가하였으며, 양파, 율무 및 잣 파동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물량공급을 위해서 중국산으로 대체하였음.
- 미국 현지 소비자들도 적절한 가격과 신선도만 유지한다면 판매에는 큰 애로사항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현지 소비자들의 선호도를 파악하여 적절한 마케팅전략만 수립하여 진행할 경우에는 한국산 농산물의 선호도는 더 높을 것으로 판단함.
- 현지 유통종사자들은 한국산 농산물의 틈새시장 확보의 여력은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공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 수립이 필수 사항이라고 판단함.

<사진 12> 과수 및 김치 판매대

